

북한산 한약재 반입 감소 추세

북한산 한약재 반입이 1995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89년에 76톤, 금액으로는 약 39만 달러의 북한산 한약재가 반입된 것을 시작으로 계속 증가해 95년도에 약 6백63만 달러 상당의 한약재가 반입되던 것이 97년에는 2백57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반입 물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국내 경기 위축에 따라 전체 한약재 소비량이 감소된 것이 주원인이나 반입된 한약재 중 질이 떨어지는 한약재가 포함돼 있어 한의사들이 구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질이 떨어지는 한약재가 반입되는 것을 질

◇ 북한 한약재 반입

(단위 : \$US)

구 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합 계
결명자	965				35,410		36,375
금은화					93,331	1,749	95,080
녹 용			400,050	1,376,777	801,100		2,577,927
뜯 속						21,890	21,890
링탕근					24,361		24,361
만 삼			9,611				9,611
복단피				198,592	136,079	121,510	456,181
반 하			42,049			94,282	136,331
백강잠						10,637	10,637
백 출	933,078	822,057	355,515	358,643	523,051	1,322,228	4,314,572
백복령	757,418	873,546	524,550	708,709	418,941	260,591	3,543,755
복분자						18,386	18,386
사 향				3,001,000			3,001,000
산 약				99,875			99,875
세 신						56,130	56,130
소회향	7,123	10,696			11,052	41,446	70,317
속 단						1,709	1,709
시 호	118,804		41,774	136,211		101,173	397,962
애 엽						1,433	1,433
오미자	148,463		16,119	37,800		77,890	280,272
음양곽	438,609		18,035	34,898			491,542
옥 죽						9,953	9,953
위령선						1,358	1,358
지 황			486,761	296,000	77,239	128,909	988,909
창 출	2,158,355		72,736	361,113	492,691	291,424	3,376,319
행 인				16,620		8,968	25,588
황 기		302,614					302,614
기 타	632		177,427				178,059
합 계	4,563,447	2,008,913	2,144,627	6,626,238	2,613,255	2,571,666	20,528,146

「남북한교역 추진 세부사항」(서울 : 통일원, 1998년)

보다는 시장성만을 중시하는 중개업자가 한약재를 반입해 오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규정상 하자만 없으면 반입·유통될 수 있어 한약재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반입되는 북한산 한약재는 현행 한약재 품질 기준인 「약사법」과 「한약재 관리규정」에만 통과하면 국내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산 한약재는 초기에 북한산이라는 특수성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이후에는 한의사들의 외면을 받아 수요가 감소해 반입량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한의학 분야의 남북한 교류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국내 한의사들이 선호할 수 있는 양질의 한약재가 반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한의학 분야에서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약재의 교류가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는 만큼 반입을 관장할 기구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남북교류를 단순한 상업적 차원에서 취급하는 개인에게 반입을 담당토록 할 것이 아니라 한약재를 의약적 차원에서 취급하는 한의사와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단체가 포함된 별도의 추진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산 한약재는 이제 우리나라 한약재 시장에서 선을 보이는 초기 단계를 지나 수급을 조절해 주는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한약재에 대한 관리를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1992년 9개 품목에 불과하던 북한산 한약재는 95년에 12개 품목, 97년에는 19개 품목으로 증가했고 금액으로도 전체 한약재 시장 규모에 비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백출, 창출, 백복령 등의 경우 북한산의 반입물량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을 생각한다

환경 호르몬의 증상들

환경호르몬에 인간과 동물이 파괴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1950년대부터이다. 플로리다의 흰독수리들이 짝짓기 철이 돌아왔는데도 2/3가 짝짓기에 관심이 없었다. 짝짓기의 본능이 사라진 것이다. 5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는 수달을 발견하기 힘들어졌다. 60년대 미국에서는 명크 사육업자들이 더 빨리 살찌우기 위해서 여성호르몬의 일종인 DES를 주입한 결과 더 이상 명크들은 생식을 하지 않았다. 생식기가 파괴된 것이다.

최근 노르웨이 과학자들은 극지방에 사는 북극곰 새끼 2천마리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무려 90마리가 수컷과 암컷의 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지난 50년동안 세계 남성의 정자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이다. 1940년에는 남자의 정자수가 1ML당 1억1천3백만 마리였으나 1990년에는 6천6백만 마리로 50년동안 42%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환암 환자 수는 2배로 증가했으며 기형 남성 생식기를 가진 신생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환경 오염물질들이 체내에 축적되면 마치 여성호르몬처럼 작용하여 남성의 여성화와 생식능력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4월에는 일본 20대 남성의 평균 정자수(4천6백만 마리)가 40대 남성(8천4백만/ML)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다시 한번 커다란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일반적인 성행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저기준인 2천만 마리도 안되는 20대가 14%나 되었다. 이런 속도로 정자수가 감소하다가는 60년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모두 생식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살아남을 길은?

생식파괴를 하는 환경호르몬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은 플라스틱 용기나 랩에 씌워 가열하지 말아야 한다. 생선이나 치즈, 버터, 쇠고기등 동물성 지방 섭취를 피하고 대신 야채와 곡류, 과일을 많이 먹도록 하며 되도록 껍질을 벗겨 먹는다.

생활안에서는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담배를 끊고 살충제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합성세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주방세제도 가능한 합성세제로 된 것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호르몬은 에이즈보다, 암보다, 핵폭탄보다 무서운 위력으로 우리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재앙은 이미 벌써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다.